메트로 2013년 2월 6일 수요일

Entertainment p/14

로코 샛별로 돌아온 이시영

metro

메트로 2013년 2월 6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1

이동국·박주영 오늘밤 투톱

채소·수산물 과일은 전통시장서 식용유 밀가루는 대형마트서 넓어는 신선식품은 생협서

발품 조금만 팔면 알뜰 설차례상

주부들 "한푼이 어디냐" 크로스오버 장보기 붐

설을 엿새 앞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시장은 한창 세일 중이었다. 폭설이 내린 뒤였지만 시장 안은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로 북적였다. 눈에 띈 건 다양한 세일 문구였다. 대비지 명절 특수를 기대하는 상인들이 최고가부터 모둠전까지 가격을 내리고 있었다.

동태 1마리에 1000원 이란 가격표도 내걸렸다. 제주옥돔의 김윤호 사장은 "이렇게라도 값을 깎아야 사간다"며 아쉬워했다.

명절에도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는 손님들을 잡으려고 상인들은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었다. 1근 7000원짜리 모둠전은 1000원 내리고, 2만원이 넘던 국거리 최고가는 1만6000원 균일가에 찾았다. 적게 남더라도 많이만 팔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천시장을 40년 넘게 지켜온 영천전의 구윤회 사장은 "보통 명절 일주일 전이면 예약 손님이 꽤 있는데 올해는 전혀 없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 구정 맞이 할인을 시작했다"며 "설이 다가올수록 덤도 많이 주니 시장을 찾아오라"고 권한다.

최근 전통시장에선 소포장 한과나 떡도 쉽게 볼 수 있다. 한 끼 먹을 만큼만 적게 차례 음식을 차리는 가정이 늘어서다. 예년 방문한 과일가게에선 명절이면 박스째 사가던 손님은 없고 사과나 배를 3개나 5개씩만 사가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제수용 과일 등을 사러 나온 주부 최영애(43)씨는 "차례상 규모를 줄여 전통시장에서 사는 게 돈을 아끼는 최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산지와 직접 계약업체 이용도

주부들이 체감하는 차례상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시장경영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발표한 차례상 비용은 20만원 안팎으로 지난해 설 명절보다 6%가량 비싸졌다.

그러나 주부 김현영(34)씨 생각은 다르다. 김씨는 "그런 자료를 보면 조기는 한 마리이고 곶감도 달랑 5개인 데다 떡도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식용유나 밀가루 같은 부재료 값도 빠져있어 실제로 상을 차리려면 30만~40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차례상 비용을 아끼려는 주부들이 최선의 묘안을 짜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크로스오버 장보기다.

최근 시장경영진흥원과 전통시장·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차례상 물가조사를 진행한 전국주부교실중앙회의 최애연 국장은 "농축수산물은 전통시장이 저렴한 데다 사과 하나라도 품질과 가격이 다양해 예산에 따라 고르기 좋고, 대형마트는 가공식품이 저렴하니 품목별로 나눠 쇼핑을 하라"고 조언했다.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채소류는 22%, 수산물은 17%, 과일은 11% 정도 저렴했다. 반면 밀가루의 경우 대형마트가 3% 싸게 팔았다.

폭설과 한파 탓에 값이 오르는 신선식품의 경우 산지와 미리 계약을 맺어 값을 동결한 매장을 찾는 게 한 방법이다. 생협(생활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아이쿱생협의 자연드림에선 유기농 시금치가 100g당 1260원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조사한 유기농 시금치 가격(100g·1400원)보다 저렴했다.

친환경식품전문점 초록마을 또한 산지와의 연간 계약 재배를 통해 '널뛰기 가격'을 줄이고 있다. 사과·배·한우 국거리·조기 등 설 성수품 19개 품목 비용이 16만8550원으로 대형마트보다 15% 저렴했다.

/김현순 배지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평창 스페셜올림픽 폐막… 마지막 밤 수놓은 피겨여왕들 김연아와 미셸 콴이 5일 오후 강원 평창 용평돔에서 열린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폐막식에서 지적장애인 피겨스케이터들과 함께 짝이뤄 '강남스타일' 에 맞춰 말춤을 곁들인 아이스 쇼를 선보였다. 지난달 29일부터 8일간 진행된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에는 106개국 3300여 명의 선수가 '함께하는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관련기사 21면> /뉴시스

동네빵집 500m내 대기업 제과점 못연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타격

동네 빵집이 있는 곳에 파리바게뜨와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들어설 수 없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과점과 음식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은 전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는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일부 출점을 허용했지만 기존 제과점과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해 사실상 신규 확장이 어려워졌다. 2011년 기준 국내 제과점 수는 총 1만6000여 개로 이 가운데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3095개,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1281개다.

베이커리 사업이 전체 그룹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SPC그룹은 동반위 권고안에 대한 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SPC 측은 "권고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회사 내부에서 회의 중"이라며 "권고안을 따르면 사실상 점포 축소인데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고 동반위와 더 이야기를 해야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서 권고가 불이행되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중기청의 권장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현재까지 적합업종 지정 대상 기업 가운데 권고안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앞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동네 빵집 인근 500m 내 출점이 금지되는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손님들이 앉아있다. /[illegible]

설 자금 방출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닷새 앞둔 5일 서울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설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뉴시스

선수금, 공증비 먼저 입금하면 즉시 지급 에 속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 쉬워진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를 당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주범은 물론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는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부처 협의를 끝내고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로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대폭 손질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구성 요건을 마련했고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일반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만 처벌이 가능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범죄 구성 요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과 함께 최근 늘고 있는 '대출사기'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고 피해금 환급 구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당신은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저신용자가 선수금과 공증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10%가량을 입금하면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이 대표적인 대출사기다.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대출 신청하거나 저축상품 해지시에는 금융회사가 전화 또는 휴대전화문자(SMS)로 본인 재확인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라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에 무게

지난해 연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의 6개월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취득세 감면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세수 부담과 효과 등을 고려해 원안보다는 기간을 줄여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득세를 1년간 감면하면 오히려 부동산거래를 하반기로 늦추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데다 지방세수를 충당할 정부 재정 여력도 충분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감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율이 떨어진다.

/채용준기자 [illegible]

신용도 낮아도 '반전세 월세' 저리 대출

신용도가 낮아도 반전세 월세(보증금부 월세) 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15~24%에 달하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연 5~6%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반전세 월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다음달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반전세 가구는 298만 가구(2010년)로 5년 새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8%로 늘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月6만원대 여대생 기숙사

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소재 기숙사인 '공릉희망학숙우장' 입주 여대생 14명을 12~15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소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6만6700~12만500원, 비수급자 자녀는 8만~14만4600원이다.

/채용준기자

당첨자 24% "직장 그만두겠다"

로또1등 대박땐 재테크·대출금 상환 등에 활용

로또 1등에 당첨된 기혼자 10명 중 6명은 배우자에게 당첨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복권 수탁업체인 나눔로또는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 3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첨자의 75%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는 40대(36%)가 가장 많았고 30대(26%), 50대(23%)가 뒤를 이었다.

기혼자 가운데 "당첨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이후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는 비율도 37%나 됐다.

당첨금 활용 계획으로 당첨자의 30%가 예금 가입과 주식 투자 등의 재테크 포부를 밝혔다. 이어 대출금 상환(22%), 부동산 구입(20%), 사업 자금(14%) 순의 답변이 나왔다.

당첨금을 받은 후 본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76%가 그렇다고 답했고 나머지 24%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윤희기자 unique@

블랙박스 車보험 수술

설치한 사진 전송 의무화 등 가입자 규정 강화

블랙박스 보험 출시가 4년 됐다. 금융감독 당국이 살펴보니 '검은 거래'가 만연했다. 거짓 정보로 보험료를 할인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금융 당국은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5일 보험업계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4월 더케이손해보험을 시작으로 국내 손해보험사 13곳에서 블랙박스 장착 차량의 보험료를 3~5%가량 할인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345만명의 9.8% 수준이다. 이런 상품이 높은 인기를 끌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보험 가입자들이 블랙박스가 없는데도 기기를 설치했다고 거짓으로 알리거나 고장 난 블랙박스를 정상 작동한다고 속여 보험료를 할인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은 도덕적 해이를 막고 블랙박스 보험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가입자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개선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산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청계천 행운의 동전 지난해 4850만원 '사상 최다' 5일 서울 청계천 올의 담에서 열린 동전의 동전 모금액 기부행사에서 관계자들이 동전을 면저 넣고 있다. 서울판 트레비 분수'로 불리는 삼미달에는 지난해 4850만원어치 행운의 동전이 쌓였다. /연합뉴스

서울택시 시속 120㎞ 제한 추진

서울 시내 택시의 최고 속도가 120㎞로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의 최고 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택시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심야시간대의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시내 교통 여건상 차량이 시속 120㎞ 이상으로 달리기 힘든 점과 연료비 등을 이유로 택시업계를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징수를 한 번이라도 하다 걸리면 일정 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처벌 강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최근 시의 통계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2009년 1만3335건에서 지난해 1만6699건으로 25.2% 증가했다. /장윤희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2월6일> 글·그림 박상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즉위

1952년 2월 6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녀는 전 국왕이던 아버지 조지 6세의 건강악화로 이미 다양한 국가행사에 아버지 대행으로 참석해 왔는데 국왕이 갑작스레 사망하여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여왕의 대관식은 이듬해인 53년 6월에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에서 거행됐는데 사상 최초로 TV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됐다. 지난 1999년 한국을 방문한 여왕은 자신의 73번째 생일을 안동 하회마을에서 맞았다.

QUEEN ELIZABETH II

① 신문 배포대에서 메트로신문을 집는다
② 오늘의 복코드를 찾고 오늘의 상품을 확인한다
③ 복코드 앱을 휴대폰에 내려받아 실행한다
④ 스캔하기 버튼을 누르고 오늘의 복코드를 스캔한다
⑤ 스크래치 카드를 긁어 당신의 행운을 확인한다

화면 긁으면 선물 펑펑

출근길 행운 주는 '메트로신문 복코드앱' 론칭

메트로신문은 설 연휴를 앞두고 모든 독자들에게 새해 큰 복을 기원하며 '복코드' 앱을 론칭했다.

메트로신문의 복코드 앱은 출리고 피곤한 직장인들의 무료한 출근길을 매일 활기찬 행운의 아침으로 바꿔주는 즐거운 서비스다.

메트로신문에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복주머니 컬러 코드를 '복코드' 앱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스크래치에 참여할 수 있다.

매일 바뀌는 '오늘의 상품'과 실시간 잔여 수량을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지르며 복권을 긁는 것처럼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알려준다. 매일 기회가 주어지고, 당첨되지 않았을 때는 광고를 보면 참여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복코드'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iOS 버전도 곧 론칭될 예정이다. 매일 새로운 경품을 제공하는 '복코드' 앱은 출근길을 기대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로 직장인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트로기획

본 이벤트는 (주)메트로신문사와 (주)모바일디디어가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외교부 이어 교육부·방통위 등도 정부조직개편안 반발 … "반드시 원안대로"

국회로 출근하는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각 부처별 반발에 대해 적극 대응 모드로 전환하고 원안 사수에 나섰다.

인수위와 외교통상부의 충돌에 이어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주요 업무를 이관할 교육과학기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도 기존 업무를 유지하는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이틀째 국회로 출근했다. 각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의원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체 '5+5' 10인 회동에 참여하며 인수위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한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와 옥동석 위원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대체 토론에 참석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의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 정부조직이 인수위의 안대로 개편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여야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인수위는 전날 외교통상부처럼 각 부처의 반발이 부처 이기주의로 비칠 경우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를 위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앞으로도 진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귀기자 gresu1@metroseoul.co.kr

김성환(왼쪽)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인 새누리당 강석훈(오른쪽) 의원과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띵동
택배왔습니다~
와아아!
설
선물들이네!
사과
난 이 큰
리본 달린거
풀어볼래요!
난
제일 큰거!
그래
그래
5분 후
흠 이제 엄마가
고른 상자 열어볼까?
짜자잔~
우와아…
이번 설엔 알차고 실속있는
우리 농산물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농림수산식품부
NH
농협

日 '독도부' 신설 강행

영토문제 전담부서 총리관저에 설치 - 한국 외교부 "즉각철회"

일본이 독도 문제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5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서로 총리 관저의 일부로 분류된다.

새로 설치되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11월 내각관방에 설치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대책 준비팀'을 강화한 조직이다. 이 준비팀에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가 합쳐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로 재편되는 것이다. 외무성이 맡고 있는 센카쿠 대책 기능도 이 조직이 일부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정실은 일본 국내외를 상대로 독도와 쿠릴 4개 섬, 센카쿠 열도가 모두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된다.

야마모토 이치타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은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새 조직 설치 의도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시대 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높이 126m 호텔 '맨손 등반' 스파이더맨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암벽 등반가 알랭 로베르가 4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의 리브르 호텔을 기어오르고 있다. 로베르는 이날 126m 높이의 호텔을 안전장비 없이 맨손으로 오르는 데 성공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절약 강조하려 이름까지 바꾼 中 갑부

억만장자 천광뱌오(陳光標·사진) 장쑤황푸 재생자원이용유한공사 회장이 이번엔 '번그릇을 뜻하는 광반(光盤)'으로 개명 신청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천 회장은 사회적인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표할 표(標)' 대신 '소변 변'으로 바꾸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천 회장은 "사회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자원과 음식 절약 운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 회장의 '튀는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쓰촨 대지진 때 36시간 만에 2000㎞ 떨어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140여 명을 구조해 중국 당국에 의해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50여 위안(약 8700억원)가량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천 회장은 평소 2명의 자녀를 본명 대신 '환경보호'와 '환경'을 각각 의미하는 '환비오(環保)', '환징(環境)'이라고 각각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국명기자 km@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등록인·발행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흥식
편집국장	조진호
광고국장 직대	김한철
서울광고문의	(02)721-949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80
독자센터	(02)721-9862

today metro global 지구 돌리기

상점서 맥주 못산다

경찰마 로보캅 변신

넷이 덤벼도 못이겨

EXCHANGE RATE

달러	1085.50
엔(100)	1175.93
유로	1466.10
위안	174.29

뒷걸음치는 제조업 성장률

3년새 14%대서 2.2%로…정부 나서 환율 등 수출 경쟁력 키워야

지난해 서비스업 성장 속도가 제조업을 앞질렀다.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11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제조업의 경기 악화가 빨랐던 탓이라. 다시 수출경쟁력 강화가 화두가 됐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2.4% 성장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제조업은 2.2%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제조업 성장 속도가 서비스업에 뒤처진 것은 2005년 이후 최초다. 당시 금융위기로 제조업이 마이너스 성장(-1.5%)을 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충격을 제하면 사실상 2001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인 셈이다.

제조업 성장률은 2010년 14.7%를 기록하며 반등하는 듯했으나 2011년 7.2%로 반 토막 났다. 지난해는 다시 2.2%로 대폭 꺾였다.

이 기간 서비스업 성장률은 3.9→2.6→2.4%로 소폭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 경기침체로 우리 수출 제조업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상당수가 수출업체인데 주요 수출 시장의 경제 회복이 더디지자 제조업 성장이 둔화됐다는 것이다.

한은 조사 결과 올해 1월 제조업체의 13.1%가 경영 애로사항으로 '환율'을 꼽았다. 이는 전월의 8.8%보다 환율을 답했던 것에 견줘 배이 늘어난 것이다.

1월 현재 수출 제조업체의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도 72로 기준점(100)을 크게 밑돈다.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제조업 부활 경쟁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만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수출주도형 경제는 수출이 잘 돼야 설비투자와 고용·소득이 늘어 내수가 개선되는 구조"라며 "정부는 기업이 환율 등 외부 충격에 잘 버틸 수 있도록 돕고 업계는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fairyhand@metroseoul.co.kr

옛술 '진상주' 어떤 맛일까
설날을 닷새 앞둔 5일 경기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담가 마실 수 있는 우리 옛술 '진상주(進上酒)'라는 전통 술을 소개하고 있다. 진상주는 다른 전통주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16~17% 정도로 제법 높지만 달콤하면서 목 넘김이 부드럽다. /뉴시스

기업·가계 소득증가율 2000년 이후 7배 격차

"2000년 이후 기업소득 증가율, 가계소득의 7배." 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경제의 기계·기업 간 소득 성장 불균형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가계소득은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0년간 기업소득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16.4%를 기록했지만 가계소득은 2.4%에 그쳐 양측의 격차는 7배에 달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성장 불균형이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 측은 "가계소득 부진으로 말미암은 소비 억제 효과가 기업소득 호조로 인한 투자 촉진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며 "이 탓에 내수가 부진해지고 자영업 소득이 침체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성기자

KOSPI 1,938.18 ▼15.03 (-0.77%) USD/KRW 1,087.00 ▲2.40

북풍 맞은 코스피 코스피가 유로존·북한 리스크 현실으로 1930대로 밀려났다. 5일 코스피 지수는 15.03포인트(0.77%) 내린 1938.18에 장을 마쳤다.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코스피, 원·달러 환율 지수 전광판 앞으로 딜러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애플, 국내서 '2인자'도 위태위태

브랜드 호감도 조사에서 LG전자에 10%P 앞서

애플 호감도가 국내에서 LG전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벌인 특허소송의 여파로 보인다.

조사업체인 마케팅인사이트는 지난해 9~10월 휴대전화 보유자 7만3365명을 상대로 e메일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애플 브랜드 호감도가 55%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옵티머스G 출시 이후 호감도가 상승한 LG전자의 45%와 10%포인트 차다.

애플의 브랜드 호감도는 2010년 4월 52%에서 출발해 점차 상승세를 보여 지난해 4월 조사에서 73%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이번에 무려 18%포인트 떨어졌다.

애플과 LG전자의 호감도 격지는 LG전자가 최저 호감도(34%)를 기록한 2011년 4월 최고 39%까지 벌어졌지만 이후 LG전자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호감도는 현재 83%로 안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팬택은 2010년 9월 LG전자를 넘어섰지만 이후 계속 추락을 거듭했다. /박상훈기자 zer1@

엔씨소프트 작년 매출 7500억 넘어 사상최고

모바일에 밀린 온라인게임이 옛 영광을 재현하려는 조짐일까.

엔씨소프트가 MMORPG '블레이드앤소울'과 '리니지'의 흥행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5일 엔씨소프트의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 7535억원을 달성하며 연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4분기 실적도 매출 2234억원, 영업이익 1132억원, 순이익 1019억원으로 모두 분기 사상 최고치다. /박상훈기자

건물 내부 상점도 '내비'로 찾아간다

고역스나 인천공항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상점 등 위치정보를 알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6년까지 3D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초정밀 실내위치측정기술과 결합해 실내 경로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위치측정기술은 실외 GPS 방식을 활용하다 보니 건물 밖의 위치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건물 내의 위치정보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카이스트(KAIST)가 개발한 초정밀 와이파이(WiFi) 방식의 실내측위기술을 실내공간정보와 접목시켜 실내 공간을 3D로 보여줄 방침이다.

우선 상반기 중 서울 지하철 시청역사에 대해 실내경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소에는 시청역의 1·2호선 환승 경로와 원하는 출구로 가는 최적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실내경로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시청역에 이어 하반기에는 강남역, 인천공항, KAIST 캠퍼스 내 건물을 대상으로 실내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상훈기자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왼쪽 사진)와 피아트 프리몬트·친퀘첸토·친퀘첸토C(왼쪽부터).

필살기 없는 신차 어쩌나

쌍용차·피아트 나란히 공개
강점 없어 업계 "뜻밖" 반응

쌍용차와 이탈리아의 피아트가 같은 날 다소 뜻밖의 신차를 선보였다.

쌍용차는 5일 11인승 다목적 레저차량(MLV) 코란도 투리스모를 출시했다. 기아 카니발, 현대 스타렉스 양강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다인승 차량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가격, 동력성능, 공간 활용성 등에서 경쟁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 동급에서 유일하게 4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차별화 요소다.

최근 복직한 무급 휴직자들이 코란도 투리스모를 제작할 것으로 알려져 남다른 의미가 있기는 하다.

같은 날 피아트는 경차 친퀘첸토(500), 친퀘첸토C(500C), 7인승 SUV 프리몬트를 내놓았다.

주력으로 내세운 친퀘첸토의 경우 BMW 미니가 경쟁 모델이지만 엔진과 차체가 더 작고 실내공간 역시 좁지만 가격은 2690만~3300만원으로 비슷하다.

경차라고는 하지만 1.4 가솔린 엔진이 기록한 복합 연비는 12.4km/ℓ로 국산 동급인 프라이드(13.3~14.5km/ℓ)보다 낮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어떤 전략이 있는 지 모르지만 쌍용과 피아트의 신제품은 다소 의외"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sel@metroseoul.co.kr

총수 동생·조카회사 몰래 챙기기 '제동'

친족기업 사이의 편법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5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총수의 친인척이 사주로 있는 친족기업과 이뤄지는 거래 현황을 대기업 집단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친족기업 간 대규모 거래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공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은 변칙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치매 간병비 90세까지 보장

암·뇌졸중 등 진단비도

차티스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명품치매보험'을 출시했다.

치매 간병비를 더욱 강화해 5000만원을 지급한다(중증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 후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 한). 40세 남자 기준 월 1만2240원의 보험료로 치매 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품치매보험'은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가입 상담을 할 수 있다. 치매 보장 외에도 선택계약을 통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및 입원일당 등 다양한 보장의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

5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10% 할인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harti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80-432-0170

/박성훈기자

러시아·두바이 환자도 찾는 그 병원

부민병원

심평원·보건부 인정 척추관절 종합병원 '부민병원' 의료한류 이끈다

국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의료관광이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척추 관절 병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중 부산에서 시작해 서울, 해외까지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척추 관절 종합병원 부민병원은 러시아, 두바이 등 해외 의료시장 거점 확보를 통해 의료 한류를 이끄는 핵심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8년간의 임상 노하우 빈틈없는 협진… '맞춤토털 케어' 해외 정평

◆빈틈없는 협진, 맞춤형 토탈케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환자들까지 부민병원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맞춤형 토탈 케어' 시스템이다. 맞춤형 토탈 케어 시스템이란 척추 관절 외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의료진이 협진하는 구조를 말한다.

부민병원은 지난 28년간 축적된 척추 관절 분야의 임상 경험과 진료 노하우를 토대로 세분화된 척추 관절 센터와 함께 내과는 물론 신경과, 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수의 전문 분야 의료진이 포진하고 있다.

또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중환자실 운영을 통해 만일의 사고에까지 철저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재활전문치료실, 관절도수치료 등 세분화된 시설을 운영 중이며,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육 등 1대1 맞춤형 재활 교육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75명의 전문 의료진 포진

부민병원은 30년 경력의 척추전문의 정흥태 이사장을 필두로 관절센터를 이끌고 있는 서승석 원장까지 임상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75명의 전문 의료진이 포진해 있다. 의료진들은 운동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비수술 치료부터 최소상처수술과 같은 최신 수술까지 최적의 치료를 시행한다.

이러한 의료 기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공고관절수술 1등급',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등 공식 인증을 통해 검증받았다.

실제로 최소상처척추수술에 대한 실례와 노하우는 국제적으로 우수하고 가치 있는 연구만 다루는 SCI 논문에도 여러 차례 게재된 바 있다. 세계요추학회(ISSLS),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세척추수술학회(PASMISS) 등에도 지속적으로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실력·원칙·나눔의 진료 철학

부민병원은 30여 년 전 개인의원에서 출발해 현재 900여 병상과 1000명이 넘는 직원을 갖춘 대병원으로 성장했다. 큰 변화 속에서도 '실력과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진료 철학을 고수했다.

이 같은 철학은 해외에서도 통하고 있다. 네팔 지역 최초의 한국인 자선병원 '도토히얀병원' 의료행사,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러시아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 등은 환자 유치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9월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철도병원, 르네상스 21 병원과 협약을 맺었으며 두바이까지 진출했다.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은 "부민병원만의 맞춤형 토털 케어 시스템과 척추 관절 전문 의료진의 의술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국내 척추·관절 의료 기술을 해외 환자들에게도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감기 끝에 찾아오는 중이염 조심

겨울철 더욱 신경 써야 할 아동 질환이 바로 중이염이다.

중이염은 중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증성 변화를 뜻하는데, 감기에 걸렸을 때 코를 세게 풀면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을 타고 콧물 세균이 중이 내로 쉽게 들어가 삼출성 중이염에 잘 걸리게 된다.

중이염은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아이가 자주 귀를 잡아당기거나 귀에서 진물이 흐르는 경우, 감기를 앓고 난 후 갑자기 TV 볼륨을 높이거나 지나치게 가까이에서 시청할 경우 등에는 중이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아이케어네트워크 장혜기이비인후과 장혜기 원장은 "중이염 예방에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유아의 경우 우유병과 젖꼭지를 너무 오래 빨지 않게 하고, 우유를 먹일 때에는 비스듬히 안고 먹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ms@metroseoul.co.kr

이산화염소로 만든 '항바이러스 탈취제'

국내 벤처기업인 케모피아가 이산화염소수 장기보존 특허기술로 만든 '클로어 항바이러스 탈취제'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면서 주변의 노로바이러스, 신종플루, 각종 대장균 등 유해 세균을 제균하고 악취까지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제품의 핵심 성분인 이산화염소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종 세균 소독제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물질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제균 테스트에서 탁월한 결과를 얻었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지난해 7월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했다.

케모피아는 제품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내일(7일)까지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에서 이벤트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31)720-5548

In Brief

■소셜커머스 **티몬**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일본관광청·엔터비아홀사 이튼과 연계한 해외 뷔 여행 단독 상품 'Again 솔로대첩 in Japan'을 출시했다. 20~30대들에게 인기 있는 하우스텐보스와 규슈 올레 데이트가 포함돼 있다. 남녀 각각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www.tmon.co.kr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이 3월 말까지 4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페 스탠포드에서는 밸런타인데이에 커플들이 식사 시 초콜릿과 폴라로이드 사진 1장을 제공한다. 펜하던 그릴&바에서는 프러포즈 이벤트도 준비했다. 졸업·입학생에게 뷔페 식사를 무료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문의 02)6016-0080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의 B1XG1 재킷이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 박람회인 뮌헨 ISPO2013 어워드에서 '올해의 아시아 제품(Asian product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수상한 'B1XG1재킷'은 고어텍스 소재로 완벽한 방수기능과 높은 투습력을 자랑으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패션 전문 쇼핑몰 **하프클럽**에서 특별한 밸런타인데이를 위한 이벤트를 12일까지 진행한다. 톰빈클라인·컨버스·지크·노스페이스 등 유명 브랜드 1000여 종의 상품을 30~50%까지 할인한다. 특정 브랜드 구입 시 초콜릿 선물을 증정한다. 문의 www.halfclub.com

'박근혜 백' 오해가 낳은 대박

국내 명품 브랜드 '호미가' 언론 노출 덕분 매출 급증

'박근혜 백' 논란에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호미가'가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즐겨 드는 회색 가방(사진)이 국산 호미가 제품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뒤 해당 브랜드 매출이 급증했다. 논란이 일자 당선인 측은 해당 가방이 영세업자의 제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호미가는 함박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호미가 매장에는 화제가 된 가방을 찾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고 일부 매장에선 진열 상품이 완판되기도 했다. 호미가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로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주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호미가는 코오롱 FnC의 쿠론과 함께 소위 뜨고 있는 국산 브랜드로 꼽힌다. 주력 제품은 200만원대다. 해당 제품은 타조 가죽 가방으로 애초 128만원이었으나 지난달 29일부터 30만원 인하돼 98만원에 팔리고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독거노인 200명에 떡국 대접
한국야쿠르트가 5일 서울 노원구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떡국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내 봉사단체인 사랑의 손길펴기 회원들이 200인분의 떡국을 끓여 홀몸노인들에게 대접했다.

강강술래 설연휴 정상영업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www.sullai.com)가 설 연휴 기간 정상 영업을 실시하며 알뜰 외식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 서초점과 여의도점은 연휴인 9일부터 11일까지 하루 종일 왕양념갈비나 한우왕양불고기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하는 '2+1' 이벤트를 진행한다. 역삼점도 같은 기간 왕양념갈비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더 준다.

명절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전 매장에서 선물세트(일부 품목 제외)를 최대 64% 할인 판매한다.

겨울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간편가정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500㎖ 5팩 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 5팩 10인분)는 2만2000원 등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곰탕은 HACCP 인증시설에서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고 생산된 제품이다. 한우불고기1호(1.8kg 5만원)와 송래양념1호(16대 ?만원), 한우불고기2호(3.6kg 10만원) 등 매장의 전통 인기 메뉴도 10만원 이하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연휴 기간 취미나 여가활동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방부제를 뺀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 6봉 2만5200원)도 30% 할인 판매한다.

더 할인받고, 더 행복하기
새 출발, 새 신발
+ 추가
SALE

ABC
MART
www.abcmart.co.kr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야왕' 팬 위한 특별 이벤트

유노윤호(정윤호)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팬들을 위한 이벤트를 열었다.

11일 오후 6시까지 SBS 월화극 '야왕' 본방 사수 인증샷이나 오프라인 홍보 인증샷을 SBS 공식 트위터(@SBSNOW)에 올리면 선정을 통해 친필 사인이 들어간 초콜릿을 증정한다. '야왕'에 백도훈 역으로 출연 중인 그는 "많은 분이 참여해 이벤트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힐링캠프' 시청률 상승 큰 몫

홍석천이 효과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의 시청률이 급상승했다.

4일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 그는 국내 최초 커밍아웃 연예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힘겨움을 진솔하게 드러내 시청자의 공감을 샀다. 이날 시청률은 8.4%(AGB 닐슨미디어리서치)로 지난 회 이준기 편보다 2.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MBC 상대 출연료 소송 패소

김용민이 MBC를 상대로 낸 출연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5일 "원고의 출연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용민은 지난해 7월 "전 소속사가 2010년 5월부터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세바퀴', '일밤' 등에 대한 출연료 직접 지급을 요구했으나 MBC는 "이미 공탁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중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웃도어 센터폴 모델 발탁

배우 **원빈**과 그룹 에프엑스의 빅토리아가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의 전속모델로 발탁됐다.

센터폴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는 신남신녀 모델을 통해 폭넓은 고객층에게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로 다가설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근 봄·여름 화보 촬영을 마쳤고, TV CF 촬영을 앞두고 있다.

"웃다가 NG 많이 났어요"

–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2년 전 방송됐던 드라마 '포세이돈'을 제외하면 출연작 대부분이 로맨틱 코미디였어요. 원래도 웃기고 재미있는 작품을 좋아하지만, 제일 취약한 부분을 고쳐보고자 하는 의도가 싶은 있습니다. 말할 때 어미를 잡아끄는 버릇이 있는데 대사 호흡이 빠른 로맨틱 코미디에 출연하면 교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헷갈리곤 하죠. 시영 씨는 현재 수준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현명하게 선택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저도 정말 하고 싶은 연기는 따로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해보고 싶은 연기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아닐까 싶어요. 또 로맨틱 코미디에 자주 출연했다고 해서 (로맨틱 코미디를) 일부러 피하고 싶진 않아요. 출연 제의가 들어오는 시나리오의 대부분이 로맨틱 코미디인 이유도 있지만요. 히히히.

– 이번 영화에선 처음으로 극을 이끌어갔습니다. 부담감이 상당했겠어요.

엄청났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작진의 한 사람처럼 촬영장에서 걱정을 자연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제 연기에만 신경 썼거든요. 예전에 감독님께서 해주신 조언이 떠올랐어요. 주연 배우라면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요. 이를테면 촬영 기간 동안에는 작품이 원하는 얼굴이나 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홍보까지 도맡는 책임감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작품을 찍으며 새삼 깨달았어요.

출연작 대부분 좋아하는 '로코' 장르
말끝 길게 끄는 버릇 교정 의도 있어
복싱요? 연기처럼 그냥 시작했을 뿐

– 얼굴과 몸 상태를 유지하려면 복싱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간단한 시전 운동은 모르겠지만 스파링이나 경기는 하면 안 되죠. 많은 주위 분들이 제가 복싱을 병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 철칙만큼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킬 생각입니다.

– 상대 배우인 오정세씨와의 호흡이 무척 좋습니다.

재작년 개봉했던 '커플즈'에서 처음 만났죠. 첫 느낌이 워낙 좋아 정세 오빠의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속으로 안심됐어요. 애드리브를 미리 얘기하지 않기로 약속해, 막상 촬영에 들어가면 서로 웃다가 NG도 많이 났어요. 상대를 살려주는 능력이 출중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빛나죠. 대단히 영리한 것 같아요.

잠깐 복싱 얘기로 돌려 볼까요. 대회 출전과 복싱팀 입단을 일종의 홍보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알아요. 그렇지만 그 같은 시선에 굳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복싱도 연기처럼 그냥 시작했어요. 그저 좋아해서였을 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회 출전은 더 열심히 운동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싶어 결정했던 거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기와 복싱을 한결같이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연기가 우선이겠지만요.

– 다음주면 개봉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로맨틱 코미디지만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 관객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와 정세 오빠도 블루 스크린 앞에서 연기하는 동안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아?"라며 확인할 때가 잦았거든요. 대단히 독특하니 색다르게 봐주실 거라 믿어요.

/조상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기자(흔드라이브) 디자인/박선영

영화 '남자사용설명서' 이시영

꼬마스타 5인방 새해인사 사랑스럽죠? 지난 한 해 안방극장을 종횡무진했던 꼬마 스타 들이 설빔을 곱게 차려입고 새해 인사에 나섰다. 김유정과 김소현은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시청률 40% 신화를 쓰며 '국민 세자빈'으로 떠올랐고, 박건태는 ... 에서 깊은 감성 연기를 선보이며 차기 국민 남동생 자리를 꿰찼다. 올해는 KBS1 ... 미스터 김' 의 오재무와 SBS ... 서신애가 시청률 고공행진의 바통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권남용기자 kwon@

▶눈부신 활약의 미래스타들 새뱃돈은 본방사수로 대신할게요.

'솔로' 김진호 단독 콘서트

SG워너비의 김진호가 첫 솔로 음반을 발표하고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2004년 SG워너비로 데뷔한 이후 9년 만에 솔로로 나서는 그는 13일 첫 앨범 '오늘-당신의 외로움과 함께이고 싶습니다'를 발표한다. 이어 다음달 16~17일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첫 단독 공연 '오늘'을 개최한다.

소속사 뮤니트엔터테인먼트는 "수록곡들은 SG워너비 때와 다른 개인의 진솔함이 담긴 음악이 될 것이다. 공연에서는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새 앨범 수록곡들을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가요계 생존전략 '콜라보'

월간차트 톱10에 공동작업 7곡… "대중의 다양한 기호 충족"

콜라보레이션이 올 초 음악시장의 새로운 생존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가요계의 콜라보레이션은 독립된 음악 활동을 추구하는 뮤지션이 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1월부터 콜라보 음원들이 차트 상위권을 장악했다.

국내 최대 음원차트인 멜론이 집계한 1월 월간차트에 따르면 박명수가 작곡, 피처링하고 정형돈이 작사, 보컬을 맡은 '강북멋쟁이'가 2위, 이루마가 작사·작곡·연주하고 박지영이 부른 '살다'가 3위, 에픽하이 프로젝트와 이승기가 공동 작업한 '되돌리다'가 4위, 비스트의 용준형이 피처링을 받은 양요섭의 '카페인'이 5위를 차지했다.

이어 씨스타의 소유가 피처링한 긱스의 '오피셜리 미싱 유, 투'가 8위, 에릴리가 피처링한 박치기의 '눈물사워'가 9위, 디스에스의 강민희가 피처링한 버벌진트의 '시작이 좋아'가 10위에 올랐다. 톱10 중 7곡이 공동 작업곡이다.

2월에도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인기 작곡팀 이단옆차기의 프로젝트 시리즈에 참여한 리쌍의 '눈물'이 첫째 주 차트를 석권했다. '눈물'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곡은 버벌진트의 랩에 서인국의 보컬이 더해진 '너 땜에 못살아'다. 이 곡은 4일 출시와 동시에 차트 1위로 뛰어올랐다.

서인국 소유

가요계 한 관계자는 "콜라보 음악은 한 회사에서 기획과 제작을 총괄하는 ... 단 방식과 달리 디지털 중심의 음악시장 환경에서 기능적인 '변화'라며 "각기 다른 장르의 결합이나 라이벌 회사 간의 결합 등 이색적인 공동 작업이 대중의 다양한 음악적 기호를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암보험, 사망보험
이제 따로 가입 마시고

한번에 보장 받으세요!

암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상해 · 질병사망 1억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보장, 전문등반 · 자동차(오토바이)경기로 인한 사고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참조
질병사망 또는 약관에 정한 지급율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 5천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약관에 정한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기본계약 (1만당 단위: 원)			선택계약						
Active 보험금			암 진단비 II			상해사망		질병사망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89세	6,270		30세	2,260	7,030	7,480		4,460	3,260
			40세	6,780	17,570			15,100	7,730
			50세	17,160	21,390			43,860	18,510

1 가입연령: 15~89세 2 납입기간: 전기납 3 보험료는 상해 · 질병 ... 4.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암 진단비II · 질병사망은 최대 80세까지(Active 보험금 상해사망 담보는 9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77-6428

걱정되는 치매에 목돈드는 암도!

75세 우리 부모님도 보험가입 된다고요?

치매간병비 3천만원 (최초 1회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시청각질환 수술비 50만원
시청각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암 진단비 2백만원(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 1천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차티스 **명품부모님보험**

기본계약 (1만당 단위: 원)			선택계약						
Active 보험금			치매간병비 (중증치매)			시청각질환 수술비		암 진단비 II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0~89세	12,560		50세	660	1,770	230	230	1,720	2,160
			60세	3,600	8,560	430	540	3,590	2,590
			70세	21,030	42,730	1,030	1,380	6,110	3,490

1 가입연령: 50~75세 2 납입기간: 전기납 3 보험료는 상해 1급 기준이며 ... 4. 위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5.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시청각질환 수술비 · 암 진단비 담보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77-6427

"악역 전문… 즐기면서 연기해요"

ZOOM UP 주목받는 '명품 조연' 정만식

SBS 드라마 '제왕'과 영화 '7번방의 선물' 등을 통해 '명품 조연'으로 뒤늦게 주목받고 있는 정만식(38)은 사람들에게 종종 무섭거나 제법 나이가 있을 것 같다는 오해를 받곤 한다. 그러나 강렬한 인상과 노안 탓일 뿐 실제로는 솔직담백한 성격의 서른아홉 살 총각이다.

/박찬원기자 [illegible]

'7번방의 선물' 출연진만 보고 OK 인상 강하지만 성격은 솔직담백 여친과 4년째 열애… 결혼하고파

미남 톱스타 부럽지 않은 인기

요즘 같아선 미남 톱스타도 부럽지 않다. 드라마 제작사 대표 오진완으로 진정한 악역 연기를 펼쳤다는 호평을 듣자마자 4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로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악의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 7번 방에 여섯 살 지능의 '딸 바보' 용구가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영화에서 그는 소매치기범 신봉식 역할을 맡아 또 한 번 개성 있는 연기를 펼쳤다.

자신을 비롯해 류승룡·오달수·박원상·김정태·김기천 등 충무로 명품 조연들이 한데 뭉친 '7번방의 선물'은 "충무로 조연급 어벤저스"라며 뿌듯해했다.

"연계의 실제 이야기를 폭로하는 점이 재미있어 드라마 출연을 결정했다면, 영화는 출연진만 보고 선택했어요. 이 조합이면 뭘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본도 살펴보지 않았죠. 꿈의 드림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극배우 출신으로 수많은 영화에도 출연했지만 이 드림팀 앞에선 한없이 겸손하다. 내로라하는 악역 연기의 달인들이 모인 출연진 중에서 막내이기 때문이다. '제왕'에서 라이벌 연기를 펼쳤던 김명민 역시 형이었다.

"명민 형과는 영화 '간첩' 때 처음 봤는데 제가 두 살 어리다고 하니 당황하더라고요. 나이를 들은 후부터 편하게 대하셨어요. 이번에는 형들이 다섯 명이니 꽤 귀여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하하하."

삶의 방식은 현재에 충실

모처럼 따뜻한 가족 영화를 찍으면서 마음도 유연해졌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용구 부녀를 지켜보면서 단란한 가정이 갖고 싶어졌다.

연극을 하면서 만난 여인과 4년째 열애 중인 그는 "여자친구가 해외에 머물고 있어 1년에 30일 정도밖에 만나지 못해 더 애틋하다.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결혼해 아이를 가지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기작을 묻자 "일에 대해서는 앞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현재에 충실하고 즐겁게 연기하는 게 삶의 방식이다"며 맡은 배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무대에서 한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양념들이 없어선 안돼요. 그리고 연기는 솔직담백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멋지게 보이려고 하면 티가 나는 법이죠."

사진/최윤성(라운드테이블)

또디 by 정연식

<589> 금연결심

wind8686@naver.com

뮤지컬 최대 50% 할인 이벤트

설 연휴를 맞아 뮤지컬계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팝의 거장 엘튼 존과 뮤지컬 음악의 전설 팀 라이스가 탄생시킨 브로드웨이 뮤지컬 '아이다'(디큐브아트센터·사진)는 5~11일 공연에 한해 VIP·R석은 20%, S·A석은 30% 할인한다.

국내에서 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연이은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오페라의 유령' 25주년 기념 내한 공연(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은 9~11일 공연 예매 시 20% 할인 혜택을 준다.

전쟁터에서 싹트는 남한군과 북한군의 우정을 그린 '여신님이 보고 계셔'(동숭아트센터 소극장 블랙)는 8·9·12일 공연에 한해 티켓 가격의 30%를 할인해준다.

이 밖에 '김종욱 찾기'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티켓을 반값에 제공하며, '오! 당신이 잠든 사이'는 지방에서 서울로 역귀성하는 관객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 동안 40% 할인된 티켓을 판매한다. '심야식당'도 4~11일 최대 40% 할인을 적용한다.

/박진영기자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gmail.com

찌질남만 얻어 걸리는 39세 직딩 노처녀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법 터득이 먼저야

Q Hey 캣우먼!
저는 올해 39세 된 직딩 노처녀입니다. 뭐 하나 잘난 거 없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뛰어난 미모, 쭉쭉빵빵한 몸매, 좋은 스펙도 없고 적령기만 훅~ 놓쳐버렸습니다. 가끔 소개받는 자리에 나가면 정말 어디서 결혼 못한 찌질이들만 나오는 건지 한숨만 나옵니다. 어쩌다 제가 호감 가는 남자는 여자의 여러 조건을 따지고 정말 맘에 안 드는 남자는 호감을 보이고요. 그래도 20대 땐 따라다니던 남자들도 좀 있었는데… 훗날 부모님이 떠나면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걸오슬린 판단해 좋은 사람을 놓친 건지, 제 인연을 아직 못 만난 건지.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결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 죽고 싶단 마음까지 들거든요. (눈망이)

A Hey 눈망이!
뭐 하나 잘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저 정도로 못나지는 않다 싶어 소개 자리에 나오는 남자들을 보면 내 신세가 비참하게 느껴지겠지. 역지사지로라면 남자가 객관적으로 당신의 평범함에도 못 미치는 비루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소개 자리에 나오는 상대 남자들은 주선자가 보기에 당신과 객관적으로 어울릴 수도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 남자들의 찌질함이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겠지. 일단 내 마음에 드는 남자를 가지길 원한다면 그가 따지고 드는 여러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왜 생각도 하지 못해? 상대 남자가 여자한테 뭘 바라는지 제대로 관찰이라도 해봤어? 그건 쉽게 포기하고, 내가 맘에 안 드는 찌질한 남자들 옆에 서야 하는 것도 싫고, 혼자 여생을 외로이 사는 것도 싫어서 겨우 생각하는 박제나말 구멍이 죽고 싶다는 마음이야? 제일 큰 문제는 서른아홉에 결혼 못하는 것보다 서른아홉이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과 서른아홉에 여전히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것. 그런 상태에서 결혼해도 상대를 기쁘게 할 의지조차 없을걸. 변한 나이 탓하지 마. (캣우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 8877
www.saju4000.com

폭식증 앓고 있어 항상 걱정 중년 이후엔 발복되니 안심

suhn 여자 88년 4월 1일 외국
남자 85년 8월 24일 음력

Q 안녕하세요. 매일 메트로신문을 통해 선생님 글 잘 즐겁게 읽고 있는 독자입니다. 1월 1일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차여서 힘들어하던 중 몇 년 전부터 절 좋아해준 오빠가 다시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상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9년 전부터 폭식증을 앓고 있습니다. 고칠 수는 있는지요.

A 사주를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모 형제와 인연이 얇고 부부연이 바뀔 위험이 많고 주거가 안정하지 않고 중년 이후 쇠퇴합니다. 그러나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중년 이후에 운이 활성되어 중년 이후 발복한다고 설명됩니다. 궁합을 논하기 전에 속궁합에서 남자의 생(生)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귀하 자신도 남자를 위하여 사랑과 존경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어려우니 자기 실력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폭식증은 식신(食神) 먹는 것에 귀문살이 작용한 것인데 생각이 많으면 식욕도 절로 생기니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먹지 말고 먹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마다 샤워 후 독서를 하시면 다소 절제가 됩니다.

삼재 겪어 호된 세상살이 허덕 직접 명리 공부하면 지혜 생겨

색시한롱단 여자 85년 8월 27일 음력

Q 2007~2009년까지 진짜 삼재가 뭔지 뼈저리게 느낄 만큼 호되게 보냈거든요. 지난 초 사주카페를 갔는데 도화살이 꼈다고 봐주는 걸 꺼리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다들 꺼리하고 속 시원히 할 만 해서 아기에 말씀더니 이번 몸 나아진다 하셨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는데 그 쉼표마로도 버겁데 죽고 싶습니다.

A 수(水)기가 기운이 강하게 일하고 있는데 자이 해주는 정관(正官)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으나 사주에서 약관이 없습니다. 또한 재성(기운)이 약하고 비겁(比劫)이 있으면 재산을 잃거나 건강을 상실하여 병이 드는데 운에서조차 도움이 안 되는군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이니 생각하기 나름인데 힘고 할 사주를 참해 단을 얻기도 하며 때로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돈과 기운을 낭비하여 상실감도 컸겠으니 형살 등 사주 자체에 파살을 당하여 귀하의 수호신이 해를 끼기도 한다고 학했습니다. 명리 공부를 직접 해보십시오. 이유 없이 헐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나 모든 일을 모르는 채 어렵게 가는 것보다 알고 가면 수월한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

2/6 水 일출시각 07:31 일몰시각 18:01

자료제공 K 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눈 내린 후 이상 동안은 길이 매우 미끄럽습니다. 눈이 녹지 않은 그늘진 곳이나 얼기가 남아있는 도로는 천천히 조심해서 걸으셔서 두루 외상 예니 뇌혈관을 예방합시다.

전식지수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3
1			2		5			9
		9	8	4	1	2		
	5		1		4		3	
	8						5	
	1		3		7		6	
		5	7	6	9	4		
6			4		8			5
8								7

			4	7				1
2		4		1		3		
					9			6
	3	1	6	9		7		
		9				1		
		7		5	4	9	8	
8			5					
		2		3		6		4
1				2	6			

스도쿠 정답

신점[神占] 운세

2월 6일(음 12월 26일) 김희수 인생상담 02)577-0541

쥐 48년생 집안일은 관망하는 게 이롭다. 60년생 자녀가 대접을 잘 받으니 즐겁구나. 72년생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필요하다. 84년생 자만심 때문에 좋음운전 하는 격~

소 49년생 자녀가 기대에 부응하는구나. 61년생 자본권자는 자금난 대비해야 한다. 73년생 입은 닫고 귀를 열면 무리가 없다. 85년생 변수가 큰 날이니 늘 정신 차려라.

호랑이 50년생 작작한 삶에 여유가 생긴다. 62년생 고단한 삶에 활력이 솔솔~ 74년생 말만 앞세우면 이미지만 추락한다. 86년생 어려워도 성실히 하면 하늘은 그대 편~

토끼 51년생 자녀엔 돈보다 희망의 우산 씌워주라. 63년생 기회에 일취가 엇박돈다. 75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으니 실망 마라. 87년생 여행 날릴 기회가 온다.

용 52년생 생각도 못한 재물이 들어온다. 64년생 가정에 활기 있으니 기대하라. 76년생 삶의 무거운 짐은 하나씩 벗는다. 88년생 가능성 희박해도 도전정신은 필수~

뱀 53년생 지인식 버리는 데 신경 써라. 65년생 오랫동안 뉴들던 삶은 청사된다. 77년생 아랫사람과 부딪치는 일은 피하라. 89년생 귀인을 만나 꿈을 여물게 키운다.

말 42년생 새 옷을 싣고 나는 격이다. 54년생 자존심 상해도 눈치 적당히 보라. 66년생 훈수는 할수록 효과 있다. 78년생 상사의 부탁에 능연자의 거절은 삼가라.

양 43년생 불필요한 근심은 버리라. 55년생 꼬였던 일은 좋은 신호가 나타난다. 67년생 상대방의 유화 제스처는 받아들여라. 79년생 즉흥적 월상은 큰제가 된다.

원숭이 44년생 신람께의 손해가 없다. 56년생 인사 청탁 부탁은 사양할 것. 68년생 의견 불치 보더라도 동업은 문제가 많다. 80년생 위기 돌파하려면 실험정신 발휘하라.

닭 45년생 아랫사람 처월은 덮어줘라. 57년생 횡초가 떡잎갈을 날려버리고 승부하는 격이다. 69년생 뭔한 일던 눈독 들이는 사람 있으니 조심~ 81년생 다이어트 미루는 게 좋다.

개 46년생 선행은 달콤한 행운도 동반한다. 58년생 문서일은 당분간 미루어라. 70년생 일에 제대로 빠지면 성과도 좋다. 82년생 좋은 삶에 중독되어 행복한 나날~

돼지 47년생 건강 빨간불이니 조심~ 59년생 공돈이 생겨서 한일 풀린다. 71년생 이분 무시하고 대시하면 월나방이 촛불에 뛰어드는 격~ 83년생 염려했던 일은 잘 풀린다.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7 Where did you go yesterday?

친구에게 말 전하기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이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는 그곳에 있는 몇 명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가 몇 살인지 물어봤어요.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I went to see a friend of mine
What did you talk about?
I asked him a lot of questions
He said he knew a few people there
Finally, I asked him how old he was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Hello Paul. Where did you go yesterday afternoon?

B I went to see 내 친구 한 명

정답 a friend of mine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What did you talk about? What did she say about me / him ?

2 Last night I asked him / her a lot of questions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형용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enviable	형 부러움을 살 만한	in an enviable position 부러움을 살 만한 위치에 있는
genuine	형 진짜의, 진정한	made of genuine leather 진짜 가죽으로 만든
independent	형 독립적인 independence 명 독립 (성)	an independent audit (외부 기관이 실시하는) 독립 회계 감사
latest	형 최신의	the latest information 최신 정보
timely	형 때맞춘, 시의적절한	in a timely manner 때맞춰, 시의적절하게
valid	형 유효한 validity 명 유효성, 타당성	valid for three days 3일간 유효한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2. Describe a picture

대상의 위치 묘사하기

• 위치 표현을 위한 전치사의 활용

- **in** — A man is holding a cup **in** his hand
- **on** — The woman is carrying a bag **on** her shoulder
- **at** — The girl is sitting **at** the desk
- **around** — The family is sitting **around** the table
- **inside** — Many customers are **inside** the store
- **outside** — Tables are arranged **outside** the building
- **under** — They are having a picnic **under** the tree
- **in front of** — There are people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 **behind** — There is a building **behind** the bicycle
- **along** — The cars are parked **along** the road.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했습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신시내티 타선 ML 8위

톱타자 추신수 합류 큰 힘 · LA다저스는 10위권 밖

추신수(31)가 소속된 신시내티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타선 8위에 올랐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는 5일 "신시내티가 출중한 톱타자인 추신수를 데려왔고 무릎을 수술한 중심 타자 조이 보토가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타선의 폭발력은 더욱 나아질 수 있다"며 8위로 평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추신수가 1번 타자 자리를 꿰차면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 '짐승' 노릇을 한 브랜든 필립스(2루수)와 179타점을 합작한 라이언 루드윅, 제이 브루스가 합세해 계열의 타선을 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류현진의 LA 다저스는 마땅한 톱타자가 없고 칼 크로퍼드, 핸리 라미레스 등이 부상을 완벽하게 털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스토브리그에서 자유계약선수(FA) 조시 해밀턴을 영입해 앨버트 푸홀스와 짱포를 구축한 LA 에인절스가 1위를 차지했다. /김민준기자

"월드컵에도 승부조작 있었다"

유로폴 "3년간 680경기 조작 의심" · 유럽 충격

유럽 축구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승부 조작이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축구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예선까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유럽 공동 경찰기구인 유로폴은 5일 "2008~2011년 사이에 유럽에서 380경기, 비유럽(아프리카, 아시아-중남미)에서 300경기를 포함해 총 680여 경기에서 승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에는 월드컵 지역 예선과 UEFA 챔피언스리그 2경기가 포함돼 있고,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 가운데 하나는 잉글랜드에서 치러졌다"며 "아시아를 근거지로 한 범죄조직이 전 세계 축구 경기에서 승부 조작을 시도해 약 800만 유로(12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선수와 심판 등 매수에 200만 유로(30억원)가 쓰였다"고 덧붙였다.

유로폴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랄프 무슈케 FIFA 안전국장은 "승부 조작은 세계적인 문제이며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며 "FIFA는 물론 국제 축구계, 사법 당국 등이 협력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준기자

"뭣어봐?" 구자철(왼쪽 셋째)이 크로아티아전을 앞두고 진행된 연습 경기에서 최철순(왼쪽 둘째)과 볼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주키치 발 묶어라!

오늘 밤 크로아티아전 · 기성용 제외 유럽파 컨디션 굿

다음달 카타르와 브라질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둔 최강희호가 6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최강희 감독은 5일 영국 말로우의 비스햄 애비 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 실전 훈련에서 이동국(전북)과 박주영(셀타 비고)을 투톱으로 내세웠다. 분데스리가에서 절정의 골 감각을 뽐내고 있는 손흥민(함부르크)은 이동국·박주영을 왼쪽에서 받치거나 공격의 선봉에 서는 역할이 주어졌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설 때는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이 호흡을 맞췄다.

3일 웨스트햄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중원의 핵 기성용(스완지시티)만이 피로 누적으로 컨디션 회복에 집중했을 뿐 대부분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여했다.

최 감독은 "유럽파 대부분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자신감이 올라있는 상태다"며 "경기 전날까지 다양한 공격 조합을 실험해 최적의 포지션을 찾겠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팀에서 포워드, 양쪽 날개, 처진 공격수를 다 해봤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어느 포지션을 맡아도 편하게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기성용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이날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은 분데스리가에서 14골을 터뜨려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마리오 만주키치(바이에른 뮌헨)를 '경계 대상 1순위'로 꼽았다.

그는 "만주키치는 위치감각이 좋고 몸싸움도 뛰어난 선수다. 제공권 싸움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하는 루카 모드리치와의 중원 대결도 기대된다. 그동안 배웠던 대로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펼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진준기자 mjsan@metroseoul.co.kr

지적장애인 관심 계속 이어지길!

평창 스페셜올림픽 폐막

설원과 빙판을 달군 지구촌 지적 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5일 밤 강원도 평창 용평돔에서 열린 폐회식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국가대표로 활약한 106개국의 선수단 3000여 명이 참석해 이번 대회의 추억을 되새겼다.

2015년 하계스페셜올림픽을 개최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대회기를 넘기자 '피겨여왕' 김연아와 피겨전설 미셸 콴이 모두가 승리자라는 뜻을 담아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에 맞춰 듀엣 연기를 펼쳤고, 지적장애인 예술가, 재능기부자의 공연이 이어졌다.

원더걸스, 엑소-EXO-K 등 아이돌 그룹의 무대가 이어지자 축제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다.

이번 대회를 진두지휘한 나경원 조직위원장은 "비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며 "스페셜올림픽이 만들어준 분위기를 대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앞으로도 지적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5일 오후 강원 평창 용평돔에서 열린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폐막식에서 올림픽기 하강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